

영암 대불산단, 에너지 자립산단으로 탈바꿈

산자부 공모선정 200억 확보 탄소저감·RE100 인증 지원

영암군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2024년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 및 운영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200억원을 확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영암군이 2024~2026년 총 332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자족 인프라 구축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의 하나로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친환경에너지 산업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암군은 인프라 구축과 안정화 기간

을 거쳐 대불산단의 기존 에너지 자립률 11.42%를 40.13%까지 끌어 올리고, 탄소저감과 RE100 인증 지원으로 지속가능 에너지 공급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대불산단 기업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분석해 최적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용을 지원해 연간 2억5000만원 정도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인프라 조성 △통합 에너지관리 시스템 구축 △탄소저감 지원 및 에너지 솔루션 제공 등을 추진한다.

영암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대불산단의 에너지 자립, 지



영암 대불산단.

역산업의 지속가능발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으로 이어가겠다"면서 "RE100 등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 보급하는 친환경 사업을 발굴·추진해 선도적 청정에너지도시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영암=이병영 기자**

기초영농기술 교육생 모집 강진군, 신규 농업인 대상

강진군이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는 19일까지 농업기술 함양과 지역민과의 융화를 위한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 교육생을 모집한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길라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농촌 생활의 이해 및 갈등관리, 농업경영체와 농지은행, 융복합산업, 농산물 유통과 같은 전반적인 기초영농 교육으로 구성되어 귀농·귀촌에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4년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은 25일부터 5월31일까지 매주 화, 목요일 총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강진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귀농정보와 그린대로 교육 신청에서 확인하거나 귀농지원팀(061-430-3648)으로 문의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신규 농업인들이 꼭 알아야 할 영농 기초이론과 농촌생활에서의 필요한 기본정보들로 구성된 이번 교육은 농업환경 등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농업인들이 신청해 귀농준비 및 귀농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진=김윤복 기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시행 목포시, 동물복지 실현

목포시는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4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이란 길고양이 개체수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도적 방법으로 포획해서 수술을 한 후 원래 장소에 방사해 주는 활동을 말한다.

중성화사업은 포획→수술→후처치→방사 순으로 이루어진다. 수술 후 후처치 회복을 위해 장마철, 혹서기 및 혹한기는 피하며, 체중이 2kg미만 이거나 임신, 수유 중인 길고양이는 중성화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사업 대행자는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수술은 동물병원 5개소, 포획·방사분야는 전남서남권고양이복지협회 등 2개소가 맡는다.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사업 신청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길고양이 돌보미 등 신청인이 직접 시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진행된다.

목포시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2021년 325마리, 2022년 860마리, 2023년 610마리 등 매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중성화 수술 지원으로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줄이고, 동물복지를 실현해서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강진군, 보은산 연꽃단지 새단장

강진군이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는 제2회 강진수국길 축제 준비에 한창이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보은산 연꽃단지 일원 경관 개선 및 정비, 휴게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오는 여름 수국 축제 방문객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군은 경관개선 차원에서 지난 3월 연꽃단지 내 제초 작업 및 논둑 정비를 마쳤으며, 방문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위해 기존 좁았던 보행로를 확장하고, 판석으로 포장하여 보다 산책하기에 좋은 공간으로 재창출했다.

4월 중순까지 연꽃단지 내 전망대(오두막)를 설치하고 주변으로 수레국화를 파종해 부족했던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연꽃 이외에도 다른 여름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강진=김윤복 기자**



강진군이 오는 6월28일부터 열리는 제2회 수국길 축제 준비에 돌입했다.

강진군 제공

스마트팜 기술 무장 생산성 향상 강진군 장미농장

강진군의 장미농장이 스마트팜 기술을 갖추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생산성 향상과 동시에 노동력 절감에 나섰다. 온실환경제어기술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에 주력할 방침이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강진은 전남 장미 생산의 69%를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장미 생산 선두 지역이다. 땅심화형영농법인을 중심으로 34농가, 15.3ha의 면적에서 연간 약 7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농업인 소득에도 도움이 커 지역 경제 활력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장미는 주로 연동 형태의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으며 겨울 저온시기를 지나 봄철에 좋은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최근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다.

이에 강진군 농업기술센터는 장미의 시설환경제어 필요성에 대해 농업인들과 인식을 같이하고 농촌진흥청 국비사업을 받아 올해 5농가, 1.5ha 면적에 스마트팜 환경제어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지능화된 프로그램에 의해 식물 생육의 최적조건을 자동으로 조절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업인들의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장비로 총사업비는 2억원이다.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최영아 소장은 "향후 전문가 교육 등을 통해 장비의 실용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남도숙박 할인... "싸게 싸게 전남으로 오세요"

전남도가 관광객 유치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남도 숙박할인 이벤트를 일선 시·군과 함께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남과 광주 외 주소를 둔 관광객으로 10만원 이상 결제는 4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7만원 미만은 2만원을 할인한다. 전남사랑에(愛) 서포터즈 회원은 할인금액에 더해 1만원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전남 생산품 판매 촉진과 관광 활성화 등을 홍보하는 전남 사랑에 서포터즈는 현재 45만명으로 전남에 주소를 두지 않은 전남 향유라면 누구든지 전남관광플랫폼(JNTOUR)을 이용해 가입할 수 있다.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사업은 지난해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에 미리 제출해야 할인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스마트폰의 전남관광플

랫폼 앱에서 결제하면 할인되도록 했다. 전남관광플랫폼은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심우정 전남도 관광과장 "전남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도 숙박할인 이벤트 사업은 지난해 339개소 숙박업체가 참여해 1만5000명이 혜택을 누렸다.

박진재 기자

목포인재육성재단, 상반기 장학생 선발

목포인재육성재단(이사장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역 인재를 발굴 및 육성을 위해 15일부터 상반기 장학생을 선발한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이번 장학생 선발 분야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의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관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의 자립 능력향상을 위해 자립지원금을 지원하는 2개의 분야이다.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35명과 관내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15명, 총 50명에게 1인당 최대 2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의 신청 자격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부모 및 본인 중 1명 이상이 목포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

어야 하며 목포시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국내 소재 대학(교) 재학생으로 직전 학기 평균 점수(학점 환산점수)가 74점 이상이다.

올해 저소득층 장학금의 수혜 범위와 기회가 확대된다. 기존 저소득 장학금은 중복수혜가 불가했으나, 올해는 법정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에 한해 학업 장려금(생활비) 목적으로 1회에 한해 중복수혜가 가능하도록 지급 기준을 완화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대학생 신청 자격자는 공고일(4월22일) 기준 2년 이상 목포시 소재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사실이 있던 퇴소자 전문대학, 4년제 대학생(방송통신대 및 사이버대학 제외)이다. 장학금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와 목포시 인재육성과에 구비서류를 첨부해 제출하고 선발은 선발요건에 의거 서류심사를 거쳐 진행될 예정이며 장학금은 5월 중 지급한다.

관련 사항은 목포인재육성재단 누리집 <https://www.mokpohf.com>을 참고하거나 전화(061-274-9888·270-3288)로 문의하면 된다.

목포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인 박홍률 목포시장은 "성장 가능성이 뛰어난 저소득층 및 퇴소 대학생들이 어려운 가정 형편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과 가능성을 열어가길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며 "도출된 인재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더욱 펼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목포=정기찬 기자



전남일보 구독
www.jnilbo.com